

하루를 시작하며



이종실 (사)제주어보전회 이사장·독자위원

‘고향무정’ 유감

계 사라졌지만, 편리해진 삶의 환경 때문에 옛날을 잊고 살았다. 이 노래에 대한 사랑도 줄어들었다. 노래는 때로 시대의 한과 설움을 담는다. 7080세대는 1970년대와 80년대에 대학생활을 하며 청년기를 보냈다. 그들은 당시 암울한 정치 상황과 가난한 사회에서 힘들게 지냈다. 시대 탓에 학문의 제약을 겪거나 방황도 했다. 디제가 있는 음악다방에서 팝송이나 포크송을 들으며 낭만을 찾기도 했다. 그러면 서 통기타와 맥주, 장발로 대변되는 청년문화를 형성했다. ‘고향무정’은 버려진 고향을 그리고 있지만, 일주 그 시절 국민의 정서를 대변했던 것 같다. 일제 강점기의 ‘타향살이’와 ‘나그네 설움’이 그랬던 것처럼, 이 노래도 그 시대의 황량함을 ‘고향의 쇠락’에 비유했다. 요즘,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7080

그 시절이 새삼 그리다. 국민들은 가난했지만 근면하고 성실했다. 부족한 게 많았지만 스스로 이겨내려 노력하고 협동정신으로 힘을 함께 모았다. 국가는 살아 숨쉬는 동력으로 국민과 함께 간난을 극복하며 희망을 주었다. 그래서 그때는 행복했다. 지금은, 이루어보자고 그렇게 바꿨던 시대다. 그런데 그렇게 같구했던,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는 구현도 그 가능성도 잘 보이지 않는다. 역사상 가장 흉흉해야 할 세상에서 통기타와 맥주, 장발로 대변되는 청년문화를 형성했다. ‘고향무정’은 버려진 고향을 그리고 있지만, 일주 그 시절 국민의 정서를 대변했던 것 같다. 일제 강점기의 ‘타향살이’와 ‘나그네 설움’이 그랬던 것처럼, 이 노래도 그 시대의 황량함을 ‘고향의 쇠락’에 비유했다. 요즘,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7080

의 폐해를 욕하면서 닳아가고, 같은 편끼리 용인한다. 그러면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떠든다. 기억만 하는 역사, 무슨 가치가 있나. 교훈을 얻고 나은 미래를 지향해야 의미가 있다. 왜곡해서 해로울 수 있는 역사는 차라리 잊는 게 낫다. 도처에 노랫소리와 예능에 취한 웃음소리가 높으니 태평성대 같다. 하지만 의견 백출마다 증거난방, 무질서의 형국으로 보면, 이 시대는 흑세에다 난세다. ‘고향무정’의 2절 끝이다. ‘바다에는 배만 떠있고 어부들 노랫소리 멎은 지 오래일세.’ 민초들이 체감하는 세상이 아마 이럴 것이다. 이 모든 게 필자만의 생각일까? 만약 그렇다면 참 다행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사설

태풍 피해 신속 조사해 복구 서둘러야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제주를 강타하고 지나갔다. 예상대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를 뿌렸다. 최대풍속은 초속 42m가 넘는 정도로 됐다. 초속 40m 이상이면 사람은 물론 달리는 차량도 뒤집어놓을 수 있는 위력이다. 한라산에는 950mm에 가까운 폭포비가 쏟아졌다. 태풍이 몰고 온 강한 바람과 폭우로 인해 제주 곳곳에 많은 상처를 남겼다. 기상청에 따르면 힌남노는 제주섬에 기록적인 강풍과 엄청난 비를 퍼부었다. 지난 4일부터 6일 오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대정 278.0mm, 고산 266.3mm, 대흘 240.5mm, 강정 220.5mm를 기록했다. 산지인 윗세오름과 삼각봉은 각각 946.5mm, 830.5mm가 내렸다. 최대풍속은 고산 42.5%, 윗세오름 31.1%, 성산 28.4%, 제주시

27.8% 등이다. 제주를 휩쓴 힌남노는 곳곳을 할퀴고 갔다.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고, 전선주와 가로수가 넘어지고,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또 강풍으로 인한 정전사고도 1만가구 이상 발생해 큰 불편을 겪었다. 힌남노가 물러남에 따라 무엇보다 태풍 피해 실태조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면서 그 피해가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파종을 마쳐 생육중인 당근을 비롯 모종을 심은지 얼마 안되는 양배추와 브로콜리 등 농작물이 상당한 타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들 농가에 대한 신속한 피해 조사와 함께 복구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가뜰이나 추석을 바로 앞두고 태풍 피해를 당한만큼 이들의 근심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열린마당

9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할인받자



한경훈 조천읍사무소 재무팀장

자동차세를 정기분 부과기간이 아닌 미리 내는 경우에 연납 신청을 하게 되면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각각 9.150%, 7.534%, 5.041%, 2.500%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해당 시의 세무부서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전화와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ARS 또는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번호, 인터넷지로(www.giro.dr.kr), 위택스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한 번 신청하고 자동차세를 납부기간에 납부하게 되면 다음해에도 자동적으로 연납신청이 돼 세금 할인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행된다. 그러나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난 후에 자동차세를 기간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 할인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정경제 및 지역경제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절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9월 중에 신청해 세금 할인 혜택을 받아 보시길 바란다.

뉴스-in

윤 대통령, 제주 태풍 상황 실시간 점검

위기관리센터서 모니터링

○...윤석열 대통령이 태풍 ‘힌남노’ 대응을 위해 지난 5일 대통령실에서 철야 비상 대기를 하면서 제주 태풍 상황을 실시간 점검.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5일 밤 9시 반 집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이날 밤 11시40분부터 위기관리센터에서 제주 현지에 설치된 CC(폐쇄회로) TV 영상을 통해 실시간 변하는 태풍 상륙 상황을 모니터링. 윤 대통령은 기상청장으로부터 태풍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비상 상황을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청 등 관계 기관과 실시간 공유해달라”고 당부했고,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는 전화를 걸어 “지역별로 재난 대응 인력을 최대한 재난 현장에 즉각 투입하라”고 지시. 부미현기자

고래 조형물 태풍에 철거

○...제주시 원도심 산지천에 설치돼 한달간 선보일 예정이던 대형 고래 조형물이 태풍 ‘힌남노’로 인해 일찍 철거. 제주관광공사는 이달 12일까지 제주시 산지천 주변 탐라문화광장 일대에서 ‘탐나는 전시’로 길이 30m가 넘는 대형 고래 모양을 나타낸 설치미술작품을 선보일 예정이었지만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이 제주로 북상하면서 안전상의 문제로 철거하기로 결정. 공사 관계자는 “이 조형물은 비닐하우스 골조로 기반을 조성해 비·바람과 여름철 태풍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안전 문제로 지난 4일 철거했다”면서 “주말마다 선보이는 탐나는 공연 등은 행사 기간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언. 박소정기자

고물가 관리 추석 전·후 따로 없다

제주지역 고물가가 좀처럼 진정 기미를 안보여 서민경제에 큰 타격이다. 서민들이 올 추석 명절 쇠하기에 큰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추석이후엔 가게 ‘허리띠 졸라매기’를 더 이상 못할 것이란 비관을 할 정도다. 도정이 7월 물가관리에 나섰지만 추석 전·후에 관계없이 좀 더 가시적인 성과에 주력해야 할 상황이다. 최근 제주 소비자물가는 상승세 둔화지만 전국서 가장 높은 오름세로 서민 가계를 옥죄고 있다. 통계청 조사 결과 8월 제주 소비자물가지수는 109.96(2020년=100)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6.8% 올랐다. 1998년 10월(7.6%) 이후 24년만에 최고치인 지난 6·7월(각 7.4%)보다 둔화된 상승폭이었다. 그러나 제주 8월 물가상승률이 전국 평균(5.7%)을 웃돌고, 17개 시·도중 가장 높아 여전한 고물가

현실이다. 도가 지난 7월 지방공공요금 동결 중심의 물가대책에 나선 건 시의적절했다. 문제는 도정 행보가 고물가 진정에 아직도 ‘유효’하지 않다는데 있다. 도가 공공요금 인상 동결과 주요 마트·시장 가격정보 매주 공개, 상승폭 큰 주요 품목의 구조적 문제 해결 등 6대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물가 잡기엔 태부족이다. 도정이 고물가 진정으로 서민경제를 살리려는 강한 의지와 성과를 보여주는데 급선무다. 최근 도 물가대책중 착한가격 업소의 추석전 식재료 구입비 200만원 지원, 7~8월 전기요금 지원, 이용의 날 확대 등은 시기적으로 매우 고무적이다. 도 물가대책이 추석 전만 제주의 8월 물가상승률이 전국 평균(5.7%)을 웃돌고, 17개 시·도중 가장 높아 여전한 고물가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예능보유자 故 서재(瑞齋) 김운수 선생님 제주전통문화예술인葬 故 서재(瑞齋) 김운수 선생님 장례일정 노 제 (고별식) 빈 소 : 부민장례식장 2분향소 발 인 : 9월 8일 9시 30분(부민장례식장) 노 제 : 9월 8일 오전 10시 50분 (신촌 자택/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화 장 제 : 9월 8일 12시 50분(양지공원) 봉안 및 우제 : 9월 8일 15시 40분(현왕사) 장례위원장 김상철, 문무병, 오임중, 정민구, 한권, 허남준 집행위원장 김석윤 장례위원 강경호, 강경홍, 강능욱, 강대원, 강덕환, 강문희, 강봉철, 강상우, 강순조, 강수은, 강연순, 강유석, 강윤정, 강정효, 김지수, 김지현, 김지환, 김창훈, 강태원, 강태훈, 강희경, 고광철, 고덕우, 고병도, 고보림, 고삼식, 고석철, 고수미, 고순욱, 고승우, 고승재, 고유미, 고일수, 고정현, 고춘식, 고희숙, 구성목, 김경미, 김경훈, 김계선, 김광민, 김기영, 김기삼, 김남희, 김도안, 김돌산, 김동현, 김만호, 김미숙, 김민수, 김병석, 김석범, 김선영, 김수남, 김수보, 김수열, 김순이, 김여생, 김연희, 김영진, 김영철, 김오현, 김윤정, 김은희, 김재형, 김정훈, 김창범, 김태근, 김택근, 김행생, 김향욱, 김향희, 김현미, 김현주, 김현철, 김형섭, 김희숙, 김희택, 문봉순, 문석범, 문성호, 문순덕, 문정식, 박경훈, 박 민, 박병원, 박상수, 박이남, 배진희, 백훈기, 변용석, 부선희, 부진희, 서순실, 소금순, 송동호, 송승문, 송영미, 송정희, 송희경, 신재국, 신현중, 안민희, 안종훈, 안희정, 양근희, 양선인, 양성자, 양성주, 양성홍, 양승건, 양옥수, 양은희, 양인정, 양채연, 양초미, 양혁준, 양호성, 양희광, 여상익, 오만택, 오세진, 오순영, 오승훈, 오용부, 오유정, 오준호, 우승혁, 우욱자, 윤미란, 윤성민, 윤순화, 윤정현, 윤현미, 윤현숙, 이경희, 이상진, 이상철, 이상룡, 이성희, 이수자, 이순수, 이에리, 이윤호, 이윤욱, 이인복, 이정화, 이주란, 이태희, 이현주, 이희진, 임계영, 임은혜, 장소익, 장원혁, 장윤식, 장재희, 장필식, 전용찬, 전태인, 전태현, 정남석, 정동수, 정민숙, 정애선, 최명숙, 최안정, 채금선, 채종민, 초성년, 최상돈, 한송이, 한진오, 허수민, 허재근, 허정아, 현경철, 현다빈, 현다송, 현애란, 현지애, 현혜경, 홍보원, 홍성영, 홍옥희, 홍중구, 홍진철

부 고 김중훈(롯데건설 현장소장) 아버지 김해김공 옥천(前 제주보훈지청 보존과장·향년 91세)께서 서기 2022년 9월 5일 19시 41분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2년 9월 7일(수요일) 발인일시: 2022년 9월 8일(목요일) 오전 6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빈소 장 지: 양지공원→국립제주국립원 아들 김중훈 며느리 이윤희 딸 김애생 사위 오재윤 애순 김동수(부) 애자 조창래 애실 오기영 애란 최종욱 ※ 연락처 : 김중훈 010-8890-1026

상속한정승인공고 성 명 : 양 류성호(1966. 3. 23. 생) 최후주소 : 서귀포시 동흥북로48번길 20(동흥동) 상기자는 2022년 3월 20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2년 8월 30일 제주지방법원 2022-단1000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재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정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본 공고로부터 2개월간 2. 신고 처 : 서귀포시 신서로 69, 101동 402호(강정동, 강정지재타운) 2022년 9월 7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류현서, 류현정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